

2007 문화예술계 결산

썩 미술

‘신정아 가짜 박사’ 파문에 얼룩

올 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핵심 이슈는 ‘신정아 파문’의 진원지인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개혁이었다.



2007년 이 지역 미술계는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가짜박사’ 파문을 비롯해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다시다녔던 한해를 보냈다. 사진은 지난 7월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대의 기자회견.

비엔날레 재단 개혁 목소리...지역 미술인 해외 진출 활발

문제는 신정아 파문의 상처가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사장의 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 비엔날레 전체 일정도 크게 뒤물리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폐피엔느 미술관에서 지난 9월부터 무려 2개월 동안 전시를 가졌으며, 14년 만에 서울 노화랑에서 작품을 선보인 강연근씨의 개인전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해빙기’는 멀기만 했다. 이밖에 광주시립미술관이 15년 동안의 광주문화예술회관 ‘더부살이’를 마감하고 중의공원에 독립공간을 마련, 신축·이전한 것도 지역 미술계에는 뉴스였다.

2007년 광주·전남 미술계는 ‘신정아 가짜 박사’ 파문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지난 7월4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창설 14년째를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이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예향의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아픔을 안겨줬다.

급기야 신정아 파문은 지난 7월 재단 이사장 총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또 감독선임 시스템은 물론 재단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재단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문제는 신정아 파문의 상처가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사장의 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 비엔날레 전체 일정도 크게 뒤물리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일부 지역출신 미술인들이 제2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수상자를 선정할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첩제된 지역 미술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2012년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亞문화도시홍보관 22~23일 ‘빛의 숲’ 행사

소설가 공지영씨 광주 사인회

21일 총장서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이 성탄절을 맞아 22~23일(오후 1시~6시) 홍보관과 삼지공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 보는 ‘빛의 숲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소망이 내리는 숲’, 2012년 ‘빛의 숲’, ‘쿠기와 케이크에 담긴 미래’, ‘빛의 숲 산타와 사진 찍기’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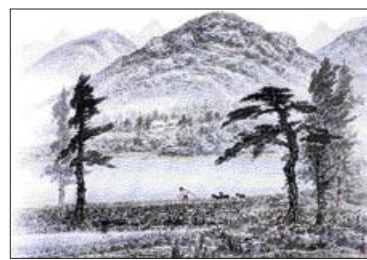
최근 신간 ‘즐거운 나의 집’(푸른 숲)을 출간한 소설가 공지영(44)씨가 광주를 찾는다.



‘즐거운 나의 집’은 중앙일보에 연재할 때부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성이 다른 아이들 셋과 사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사실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목노회 회원전

20~26일 상계갤러리



박공식 작 '구로'

제16회 목노회(회장 박공식) 회원전이 20~26일까지 상계갤러리에서 열린다.

가족은 ‘사랑을 주세요’ 연인들은 ‘정인’

두 가지색 사랑 연극

추운 겨울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밝혀주는 두 가지색 사랑 이야기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 하는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 ‘사랑을 주세요’와 애절한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인’이 그것이다.

▲극단 청춘 ‘사랑을 주세요’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희곡작가 중 한명인 ‘굿 닥터’의 닐 사이먼 작품으로 1991년 발표 당시 토니상 최우수 희곡상을 수상했다.

엄마의 사랑과 돈 벌러 간 아빠 때문에 할머니집에 살려 온 제이와 아리는 무서운 할머니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다. 하지만 마음 따뜻한 벨라 고모 덕분에 두 사람은 조금씩 간격을 마련, 신축·이전한 것도 지역 미술계에는 뉴스였다.

그러나 미술계를 슬픔에 빠뜨린 작가들의 타계 소식도 잇따랐다. 호남의 대표적인 서예가 장전(長田) 남하호 선생이 지난 10월4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데 이어 아들 영승씨 마저도 지병인 신장염이 악화돼 고인을 뒤따라 미술인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극단 대표 오설근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은미·조경란·강하나·황민영·채희영씨가 출연한다. 22일~25일(24일 공연 없음) 오후 4시·7시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문의 062-430-5257.



극단 청춘 ‘사랑을 주세요’

▲극단 연인 ‘정인’

‘파리의 연인’, ‘프라하의 연인’으로 유명한 드라마 작가 김은숙씨가 방송 데뷔전 희곡작가 윤영선씨와 함께 썼던 ‘정인’은 2001년부터 서울과 광주에서 2천회 이상 공연됐었다.

서로 아끼고 챙기면서도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쉽사리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극단 대표 오설근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은미·조경란·강하나·황민영·채희영씨가 출연한다. 22일~25일(24일 공연 없음) 오후 4시·7시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문의 062-430-5257.

반하고 두 사람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

혁은 집에서 살림을 맡고 정인은 사회 생활을 하는 조금은 색다른 결혼생활이지만 두 사람은 마냥 행복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이별이 찾아오는데...

김종필, 강원미씨가 출연하며 최근 경치가 잔잔한 노래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27~31일까지 오후 5시·7시30분, 주말 오후 2시30분, 5시, 7시 30분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문의 062-369-54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필우회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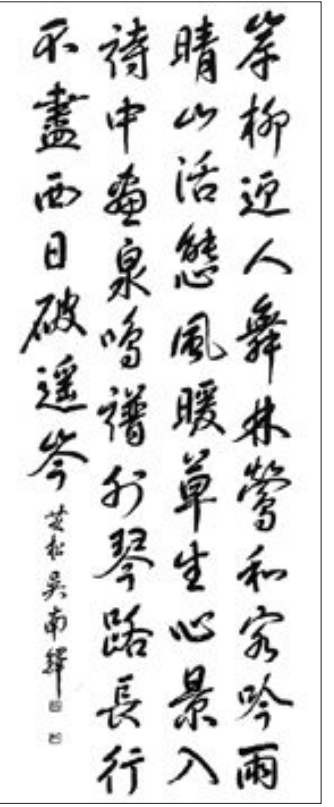
20~24일 메트로 갤러리

제30회 필우회(회장 오남택) 회원전이 20~24일까지 메트로 갤러리에서 열린다.

필우회는 송파 이규형씨의 제자들로 구성된 서예단체로 이번 전시에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등 서예 전 부문에 걸쳐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참여 작가는 고재문 임주덕 김영도 윤지혁 이영식 하용산 김호춘 채병기 한계희 김학수 윤대혁 민병후 이순영 김선규 임재화 정재호 박일규 표형섭 김용진 정희동 김광호 안남진 김문길 김춘서 씨 등이다. 문의 062-223-548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남택 작 ‘도중(途中)’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movie listings. It features a banner with 'Happy Time 영화안내' and a grid of movie listing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inner's Theater, and Mudeung Theater.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For example, Megabox lists 'The Legend' (나는 전설이다) at 12:00, 15:00, and 18:00. Enter Cinema lists 'The Golden Era' (황금나침반) at 12:00, 15:00, and 18:00. Columbus Cinema lists 'The Legend' at 12:00, 15:00, and 18:00. Sinner's Theater lists 'The Legend' at 12:00, 15:00, and 18:00. Mudeung Theater lists 'The Legend' at 12:00, 15:00, and 18:00. The advertisemen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theater and a note about ticket prices.